

메시지 2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림

성경: 빌 1:19-21상, 2:2, 3:14, 4:6-8, 11-13

- I. 바울은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 — 빌 4:11하-13.
- A. “비결을 배웠습니다.”라는 말은 바울이 새로운 상황, 곧 새로운 환경 안으로 들어갔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놓일 때마다 그 환경 안에서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 B.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는 직역하면 “나는 입문하였습니다.”를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을 가리킨다.
 - C.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골 3:4), 그리스도를 살고(빌 1:21상), 그리스도를 확대하고(20절), 그리스도를 얻고(3:8, 12), 교회생활을 하는(1:8, 19, 2:1-4, 19-20, 4:1-3) 비결을 배웠다.
- II. 믿는 이들은 비결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 곧 배우는 이들이다. 여기서 비결을 배우다는 것은, 믿는 이들이 실제의 영계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실지 상태의 모든 실제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 요 16:13, 엡 4:20-21.
- A.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사람의 본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인간 생활은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는 생활이었다(요 5:19, 30).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간 생활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 사람에게 대한 그들의 관념이 개혁되었다(빌 3:10, 1:21상).
 - B.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인성을 부인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고’(히 5:8),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빌 2:8).
 - C.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순종의 생명인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운다(마 11:29). 제자는 자신의 인간 생명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 D. “나는 회복 안에서 십팔 년 동안 위치만 니 형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았다. 내가 니 형제님에게서 본 모든 것이 나를 제자로서 훈련시켜 주는 것이 되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2장, 96-97쪽)
 - E. 주님의 제자들 곧 주님께 배우는 이들인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분의 훈련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거절하게 하고, 현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며, 복된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지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한다’ — 딤후 3:4, 2:11-13.
 - F. 교회생활 안에 있는 자매들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연장한 자매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젊은 자매들을 훈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집안일을 잘하게 하며 선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딤후 2:3-5.

- G.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내가 공흠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가련한 죄인들에게 공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갈망하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공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 마 9:12-13, 미 6:6-8, 막 12:33.

III.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 빌 4:13, 영한 동번 찬송가 564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1072장).

- A.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었으며(고후 12:2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분, 곧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결론의 말이다.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와 주님의 유기적인 관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인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말한 것이다.
- B. 과거에 바울은 완전히 유대 종교 안에서 율법 아래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주님께 돌이켰을 때 율법과 그의 이전 종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 — 고후 12:2상.
- C. 이제 바울은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로 적셔져,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열망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만, 그리스도는 표현되시고 확대되실 것이다 — 빌 3:9상, 1:20.
- D. 우리는 한 면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빌 4:11-12), 또 다른 한 면으로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을 수 있다(8절).
- E. 바울이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간 미덕들로 삶으로써 무한히 위대하신 그분을 확대하는 것에 적용된다. 이러한 미덕들을 지닌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IV.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실지적인 길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 A.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다 — 사 9:6, 요 14:27, 눅 7:50, 롬 3:17, 5:1, 8:6, 15:13, 16:20.
- B.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 교통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이다 — 빌 4:6.
- C.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하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인 하나님이다(빌 4:9).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요 16:33).
- D.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신다(비교 사 30:15상). 우리가 염려 없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은 나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며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돕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롬 8:28-30, 마 10:29-31, 고후 4:15-18).

- V.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우리의 머리, 우리의 남편이시다 (영한 동번 찬송가 784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568장)).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는 말로 이루어진다.
- A.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 그것들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분은 가장 잘 들어주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
- B. 우리는 주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을 때, 주님과 친밀함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에 주님을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주님과 통상적인 교통을 갖는 것보다 수백 배 더 낫다. 이렇게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이 자라게 된다 — 시 62:6-8, 56:8, 비교 삼상 1:15.
- C.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 본 일이 없고,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주님과 한 번도 나누어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의 사적인 일들에 관해 주님과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주님과 한 번도 친밀한 교통을 가져 본 적이 없고 주님을 전혀 깊이 안 적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릴 수 있다.
- D. 주님은 우리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 동정하신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시며, 우리가 하는 말에 기쁘게 귀 기울이신다. 살아 있는 생명수이신 그분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반석이신 그분께 말해야 한다 — 민 20:8, 고전 10:4, 출 17:6, 영한 동번 찬송가 248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02장).
- E. 시편 102편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여호와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불평이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롬 8:28-29.
- F. 시편 73편은 추구하는 시편 작가의 진실한 기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 시편 작가는 자신은 고난받는데 악인들은 잘되는 것 때문에 자칫 실족할 뻔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한 것이 헛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잘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온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 시 73:12-16.
1. 시편 작가는 악인들이 잘되는 것에 관해서 느꼈던 당혹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얻었다(시 73:17). 먼저, 하나님의 성소 곧 그분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엡 2:22), 또한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이다(딤후 3:15).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교회 집회와 사역 집회에 가야 한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
 2.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주님과 정직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감으로써 결국 주님의 빛 비춤을 받아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뚝이십니다.” — 시 73:25-26.
 3. 하나님께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해 갖고 계신 의도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빛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궁극적인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어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 빌 1:19-21상, 3:7-8, 사 43:7, 고전 10:31, 6:20, 벰전 4:11, 엡 3:16-21.